



정승연 국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출판기념회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라마다송도호텔에서 1000명이 넘는 축하객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성황리 마칩표를 찍었다. 정승연 위원장은 '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저서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권과 반칙의 난무, 법치의 실종과 사법부 위기, 입법부 독주 등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과 상식의 회복을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공교육 붕괴 등에 대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고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의 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찾는 것보다 공공선의 창출과 시민 책임의식이 공화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김기현 국

민의힘 당대표, 유정복 인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추천사를 보내왔다. 저자 정승연 위원장은 현재 연수상생포럼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인천의 정책을 총괄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수구갑 위원장으로 22대 총선 출마를 두고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문미순 기자

주요기능
 건설현장의 사람·사물에 대한 투명한 안전인증 플랫폼 구축
 - 출입인증, 지재공급이력, CCTV 영상 동동 위·변조 불가하도록 관리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실 시공 방지 및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 제공

인천시, 아파트 부실공사 블록체인 기술로 막는다

인천광역시시는 아파트 등 철근 누락, 불법 자재 사용 등 부실 건설공사를 막을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고 소매를 걷고 나섰다. 한편, 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신뢰 기반 공공·민간 융합으로 시민 체감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 사업 유치에 도전한다고 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서비스 중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력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 6개 사업을 수요조사하고, 2024년에 사업 수행자를 공모

선정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과 확산 사업에 각각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우선시는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 사업에 투명한 건설 현장을 위한 '안전인증'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 서비스는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명된 현장인력 출입관리, 인증된 자재 이력관리, 폐쇄회로(CC)TV, 사물인터넷(IoT)센싱, 인공지능(AI) 등 통합관제 기술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적용해 투명한 공사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서비스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근 누락이나 건축 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착

안했다. 또 블록체인 확산 사업에는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 실천 멤버십 통합' 서비스를 신청했다. 인천시와 군·구에서 자원순환 가계, 무인회수기 등 활용해 자원순환 실천 활동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다양한 현장과 흩어져 관리되는 불편한 앱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환경 실천 활동을 증명하는 멤버십 서비스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기술이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공공과 산업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체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재윤 기자

인천은 언제 초일류 도시가 될 것인가?

인천공항 존치해도 세계 100대 도시 못 들어가
영종대교 민자유치, 타지방 대교는 국비로 건설

사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 들어와 인천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는 시민들도 염원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존치해도 유일하게 세계 100대 도시에도 끼지 못한 도시가 인천이다.

정치권은 아는가, 인천공항은 세계 어떤 도시 공항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러나 순위도 끼지 못하고 배제된 현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책임감도 없고 모르쇠다.

그간 지역 정치권의 인천발전 애향심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22대 총선은 코앞인데 되짚어볼 문제로 부산 인구 추월 등 앞에 두고 아프기만 하다.

인천시민들은 마이너리그에 불과한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나섰다 한다. 반응은 분개·한숨을 쉬며 인물 고갈론에 참담하다는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똑똑한 것처럼 비추어질지 몰라도 이미 변질된 다선 의원들 또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세분화해 바라보라고 시민들의 중론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장기집권한 다선 의원 중 범죄와 연루되어 재판을 받거나 연루된 소리를 들은 민낯에 대해 스스로 자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 정무라인에 있던 이들은 인천을 얼마나 알고 애향심을 가지고 일한 흔적이 있어 선거에 뛰어들어 표를 달라고 시도하고 있는지 묻는다. 시선은 매우 따갑다.

용산 대통령 곁에 있으면 공천을 받아야 하고 유정복 시장 곁에서 단기 근무했으면 출마의 자격이 부여되는지 지역민에게 국회로 보내

달라는 주장은 참담하다.

인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사전 봉사는 미약하고 정치적 야욕만 보인다. 실적은 몇 점일까 경악스럽다. 인천을 100대 도시로 만들고 대교쯤은 국비로 건설하는 포부가 요구된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표를 쓰고 나왔다. 구체적인 프랜은 미미하면서 선거판에 뛰어든 모습은 아무나 국회의원이 되겠다. 지역에서 쓴맛도 보고 굴곡도 느껴본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천시민의 동정표라도 받는다. 고작 인천시청에서 시장 보좌나 한 정도로는 문제가 있다. 정치권 출신 인물들로 분석되고 있다.

온실의 화초가 민심의 향방을 알 수나 있을지 국회에 가더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는 낼 수 있을지 검증이 안 됐다. 또 정치적 기반도 부족하다고 꼽기가 많다.

이들의 정체를 인천시민들은 잘 모른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구·시 의원 등 지역 봉사쯤은 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그나마 검증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시의원도 못해본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정치권에 발을 들이려 놓았다. 능력이 없으면 단계부터 벤치마킹 후 정치권에 입문해야 한다. 시민을 홀리는 못난 정치가가 되려는 시도는 멈추길 조언한다.

정치인들의 영혼이 없는 소리를 시민들은 듣고 있다. 시민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386세대도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외국의 40대 총리가 나와 부럽다.

선진국의 부러운 정치 생태계를 보면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점점 늙어가면서 기득권만 난무하고 있다.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된 세대들의 모습은 연기가 너무나 굴뚝 청소가 필요하다.

iH, 구월종합사회복지관 10년간 건물 사용권 무상 제공

인천도시공사(iH)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 지원과 관련해 남동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iH는 지역사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702동 1층에 구월사회복지관을 지난달 31일 개관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청과 무상임대 계약을 통해 10년간 건물 사용권을 제공한다.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김석겸 구월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고 애써 주신 데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iH 서강원 주거복지본부장은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쓰고,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최재윤 기자

구월사회복지관은 '공동육아나눔터·방과후 교실·강당·교육실·프로그램실·사무실' 등 갖추고 현장과 접목